

## 전국 간호전문대학 남학생의 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김 혜 성\*

| 목 차                                      |                             |
|--|-----------------------------|
| I. 서론<br>II. 조사대상 및 방법<br>III. 조사성적 및 고찰 | IV. 결론 및 제언<br>참고문헌<br>영문초록 |

### I. 서 론

보다 나은 간호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제특성과 학업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은 많았다.<sup>5,6,10,11,12)</sup> 이와 같은 연구는 간호직이 주로 여성의 직업인 만큼 연구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변모되어 직업에 있어 남녀 간의 성적 차별이 사라지고 남성이 여성분야에서 여성의 남성분야에서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간호학생은 성적 차이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직업적 특성에 의해 간호직을 선택한다<sup>13)</sup>”고 하는 Aldag와 Carvin의 이론적인 근거는 간호 역시 여러<sup>14)</sup> 약 세분화된 전문직업이므로 간호직내의 성적 차비<sup>15)</sup>의 무의미함을 강조한다고 보겠다. 김<sup>21)</sup>은 간호직이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직업적 성장을 저해하는 외적 내적 요인으로 결혼 적령기에 이직하며 결혼후 재취업이 힘들어 전문직이라 하기에는 병균이<sup>16)</sup>령과 경험의 너무 짧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Simpson 역시 간호를 반전문직으로 보았으며 반전문직에 남성의 유입은 전문직업적 위치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sup>20)</sup>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몇몇의 간호단체로부터 남성을 간호직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1)</sup>는 제언과 함께 남성이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6,17,19,20,24,26,28,30)</sup> 그러나 미국의 등록된 남성 간

호원 수는 1961년 1%<sup>24,31)</sup>던 것이 1976년에 이르러 2%<sup>20)</sup>수준에 달했으며 아주 극소수라 하겠다.

한국은 1891년 현대적 간호가 들어온 후 1936년 오늘의 위생학교 전신인 경성요양병원 부속간호원 양성소에 1명의 남학생이 입학하여 1939년 첫 배출된<sup>7)</sup> 이래 현재까지 적지 않은 남성간호원이 배출되었으리라 생각하나 워낙 소수라서인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남성에 관한 그밖의 자료도 찾지 못했다.

현재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중 남녀공학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1976년 4개교<sup>14)</sup>(4년제: 1개교, 3년제: 3개교)에서 1978년 9개교<sup>15)</sup>(4년제: 5개교, 3년제: 4개교)로 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 오히려 감소되어 1976년 54명<sup>14)</sup>이던 것이 1978년에는 42명<sup>15)</sup>이었다.

전문간호직 위치 확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간호요구에 따른 간호인력개발의 필요에 의해서도 다수의 남성이 간호직에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남성인력 관리가 용이치 않은 것 같다. 모처럼 입학하여 충도에서 포기하거나 간호학을 전공하고도 전직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규명하여 해결하는 것이 학교나 간호단체의 의무라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학사과정을 제외하고 전국의 간호전문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의 제특성을 파악하여 학생 선발시나 학생의 교육과 상담시 보건의료기관의 직원

채용과 배치시 지침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간호사업 발전을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A.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남녀공학이 허용된 전국의 간호교육기관 9개교 중 1978년 11월 현재 남학생이 재학중에 있는 5개교의 42명 학생 가운데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송하여 회수된 29명이었다.

### B. 조사방법

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① Adrian Schoenmaker 와 David M. Radosevich<sup>27)</sup> ② Sandy F. Mannino<sup>28)</sup> ③ Reg Arthur Williams<sup>30)</sup> 등의 연구내용과 국내 여러 대학에서의 연구내용<sup>5, 6, 10, 11, 12)</sup>을 토대로 본조사의 성격에 맞도록 임으로 작성하여 사전검사 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기간은 1978년 11월 1일부터 15일간이었다.

## III. 조사성적 및 고찰

### A. 조사대상의 학교별 및 학년 분포

조사대상 33명 중 응답자는 29명으로 87.9%의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학교별로는 S교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J교 12명, K교 2명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3학년이 10명, 1학년 6명 순이었으며 재수자는 11명으로 전체의 37.9%에 해당되었다. (표 1)

표 1. 조사대상의 학교별 및 학년분포

(1978. 11월 대한간호지)

|   | 1      |     | 2      |     | 3      |     | 계      |     |
|---|--------|-----|--------|-----|--------|-----|--------|-----|
|   | 조사 대상자 | 응답자 |
| J | 4      | 4   | 5      | 4   | 4      | 4   | 13     | 12  |
| K | -      | -   | 2      | 2   | 1      | -   | 3      | 2   |
| S | 2      | 2   | 7      | 7   | 8      | 6   | 17     | 15  |
| 계 | 6      | 6   | 14     | 13  | 13     | 10  | 33     | 29  |

### B. 간호학 선택동기

윤옥 등은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목표의 선택과 결과에도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로 필요와 흥미, 목적의 자각, 성공감, 호기심, 이상적 인물과 동일시 등 여러 요인을 지적하였다.<sup>31)</sup> 따라서 남성의 간호학 선택동기도 한개 이상의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아 (표 2)의 항목에서 3개 선택도록 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가 21명 (72.4%)으로 가장 많고, “부모 및 친지의 권유” 18명 (62.3%)

표 2. 간호학 선택동기

| 선택동기           | 실수 | %    |
|----------------|----|------|
| 적성 및 취미에 맞아    | 7  | 24.1 |
| 부모 및 친지의 권유    | 18 | 62.3 |
| 해외 취업이 잘되므로    | 17 | 58.6 |
|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 21 | 72.4 |
| 장차 가정에 이용 가능하여 | 6  | 20.1 |
| 호기심에서          | 10 | 34.5 |
| 기타             | 3  | 10.3 |

“해외취업이 잘되므로” 17명 (58.6%) 순이었으며 “적성 및 취미에 맞아”와 “호기심에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은 각각 7명 (24.1%), 10명 (34.5%)이었다.

남성의 간호학 선택의 주된 동기는 간호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고 부모 및 친지의 권유와 해외취업이 잘되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간호원의 해외취업문이 줍아진 이후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나 박의 취미와 적성에 맞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고 부모 및 친지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을 택하였다<sup>5, 10)</sup>는 연구결과와 박의 적성과 취미에 맞고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와 장차 가정생활에 이용 가능하여 간호학을 선택하였다<sup>6)</sup>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남성에서 아직도 해외취업이 간호학 선택의 한 동기로써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ush는 그의 연구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생물학에 흥미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기에 남성이 간호학을 선택한다<sup>20)</sup>고 하였으며 Shoenmaker 역시 직업의 안정성과 대인관계에 흥미를 느끼며 급여가 높아 간호학을 선택한다<sup>27)</sup>고 하였고 Mannino는 사람을 만나 도움주기 좋아하며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고 자신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이기에 남성이 간호학을 선택한다<sup>28)</sup>고 하였다. Bush, Shoenmaker, Mannino의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내에서의 간호직은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뿐 만이 아니라 간호의 전문직업적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이와는 다르게 본 조사대상은 해외인력시장 상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해외진출과 직업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본을 두기보다는 부모나 친지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하였기에 앞으로 교육과정과 졸업후 취업시나 후에도 간호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학교와 간호분야의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간호직에서 남성의 위약이 미비하여 간호직에 대한 직업적인 이해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간호학 선택시

수사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영향은 끼친 사람을 조사한 결과 “부모, 선배, 친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2명, 보도매체가 1명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의 연구결과인 부모, 선배, 친구, 53.1%, 보고 24.9%, 보도기관 9.7% 순위와<sup>6)</sup> 일치하였다.

William과 Shoenmaker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간호학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로<sup>7)</sup>,<sup>8)</sup> 나타났으며 Mannino는 연구대상자의 61.3%에서 어머니, 형, 누나, 사촌형제중 간호원이 있었다<sup>9)</sup>고 하였다.

William, Shoenmaker, Mannino의 연구결과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간호의 실체를 찾았고 그 것을 기반으로 간호학선택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양호교사의 활동이 두드러져야 할 것이며 비록 작은 수이지만 보도매체를 통해 남성간호원의 활동이 소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표 3. 간호직에 대한 이해 정도

| 이해정도                 | 실수 | %    |
|----------------------|----|------|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 22 | 75.9 |
| 이성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 1  | 3.4  |
| 남성에게도 적합한 직업이다       | 18 | 62.1 |
| 직문직으로 인정받은 직업이다      | 18 | 62.1 |
| 다양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직업이다   | 18 | 62.1 |
| 기정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이다. | 4  | 13.8 |
| 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 2  | 6.9  |
| 기타                   | 2  | 6.9  |

### C. 간호직에 대한 이해 정도

간호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알기 위해 (표 3)의 항목에서 3개 선택토록 하여 그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가 가장 많아 22명 (75.9%)이었고 “남성에게도 적합한 직업이다” “다양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직업이다”가 각각 동일하여 18명 (62.1%)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의 일반적인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태도라 하겠으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나 박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전문직으로 인정 받는 직업으로 간호를 이해하고 있는<sup>6,10)</sup>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 D. 간호학 전공의 만족 정도

간호학 전공의 만족정도는 “보통이나” 가 15명 (51.7%)으로 가장 많고, 만족하는 학생은 10명 (34.5), 불

### 표 4. 간호학 전공의 만족정도

| 만족정도    | 실수 | %    |
|---------|----|------|
| 매우 만족하다 | 2  | 6.9  |
| 만족하다    | 8  | 27.6 |
| 보통이다    | 15 | 51.7 |
| 불만이다    | 4  | 13.8 |
| 매우 불만이다 | -  | -    |
| 계       | 29 | 100  |

만인 학생은 4명 (13.8%)이었다. (표 4)

이와 같은 결과는 보통이나 (51.2%), 만족한다 (25.4%), 불만이나 (23.4%) 순으로 나타난<sup>6)</sup> 박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만족한다는 학생이 가장 많은<sup>10,11)</sup> 조나 한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1975년 경북대학교 신입생의 학과 만족상태를 조사하여 나타난 만족이 56%, 보통 29%, 불만 15%와<sup>12)</sup> 비교할 때 역시 일치하지 않았다.

간호학 전공의 만족여부는 주로 강의와 실습에서 좌우되므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교수진에 대한 만족여부와 임상실습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 교수진에 대한 만족 정도

이<sup>13)</sup>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에 직접 관여하는 인자는 학생과 학생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sup>14)</sup>라하였고 노는 부정적인 교수상은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 장애를 주며 간호교육은 많은 부분을 현장에서의 경험을 교수와 함께 가져야 하므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은 매우 크다<sup>15)</sup>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진에 대한 만족여부는 학과 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교수진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나”가 16명 (55.2%)으로 가장 많고, “불만이나” 10명 (34.5%), “만족하다” 2명 (6.9%), “매우 불만이나” 1명 (3.4%)순이었다. (표 5)

### 표 5. 교수진에 대한 만족 정도

| 만족정도    | 실수 | %    |
|---------|----|------|
| 매우 만족하다 | -  | -    |
| 만족하다    | 2  | 6.9  |
| 보통이다    | 16 | 55.2 |
| 불만이다    | 10 | 34.5 |
| 매우 불만이다 | 1  | 3.4  |
| 계       | 29 | 100  |

이와 같은 결과는 박의 연구결과인 보통 59.4%, 불만 33.4%, 만족 7.2%와 일치하였고 조의 연구결과

인 불만 48%, 만족 39.1%, 보통 12.9%<sup>10)</sup>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표 6. 교수진에 대한 불만의 원인

| 불만의 원인              | 실수 | %    |
|---------------------|----|------|
| 교수진의 양적 부족          | 11 | 37.9 |
| 교수진의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부족 | 23 | 79.3 |
| 교수진의 인격적 수양 부족      | 13 | 44.8 |
| 교수진의 학습 평가가 모호      | 11 | 37.9 |
| 교수진의 남학생에 대한 편견     | 3  | 10.3 |
| 교수와의 의사소통기회 부족      | 7  | 24.1 |
| 기타                  | 1  | 3.4  |

교수진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찾기 위해(표 6)의 항목에서 3개 선택토록 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교수진의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부족”이 23명 (79.3%)로 가장 많고 “교수진의 인격적 수양부족” 13명 (44.8%), “교수진의 양적 부족”과 “교수진의 학습평가 방법의 모호”가 각각 동일하여 11명 (37.9%)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교수진에 대한 주된 불만원인으로 교수진이 불충분하고 (44%), 학생과의 거리감 (30%)<sup>11)</sup>을 지적한 차의 연구결과와, 교수진의 소양부족, (35.1%) 학생과의 거리감 (28.0%)<sup>10)</sup>을 지적한 조의 연구결과, 교과과정이 미흡하고 (31.3%), 교수와 인간관계의 어려움 (18.8%)<sup>12)</sup>을 지적한 Schoenmaker 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조사대상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보다는 교수의 양적인 부족과 교육내용과 전달 방법 및 평가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된 것은 특이하면서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하겠다.

표 7.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정도

| 만족정도    | 실수 | %    |
|---------|----|------|
| 매우 만족하다 | 2  | 6.9  |
| 만족하다    | 7  | 24.1 |
| 보통이다    | 8  | 27.6 |
| 불만이다    | 8  | 27.6 |
| 매우 불만이다 | 3  | 10.4 |
| 무응답     | 1  | 3.5  |
| 계       | 29 | 100  |

## 2.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정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이다”와 “불만이다”가 동일하여 각각 8명 (27.6%)이었고, “만족하다” 7명 (24.1%), “매우 불만이다” 3명 (10.4%), “매우 만족하다” 2명 (6.9%)순이었다(표 7). 따라서 본 조사

대상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정도는 불만인 편이 38%로 가장 많고 만족 31.0%, 보통 27.6% 순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불만이 46.8%로 가장 많은<sup>11)</sup> 한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경북의대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통이 54.3%<sup>5)</sup>로 가장 많은 박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표 8.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의 원인

| 불만의 원인                       | 실수 | %    |
|------------------------------|----|------|
| 적성과 취미에 안맞음                  | 3  | 10.3 |
| 실습이 매우 고되다                   | 8  | 27.6 |
| 병원시설 및 재료의 부족                | 11 | 37.9 |
| 병원 실무진의 학생에 대한 인격적<br>인 대우부족 | 20 | 69.0 |
| 간호이론과 실습과의 거리감               | 18 | 62.1 |
| 여성집단에 적응하기 힘들                | 10 | 34.5 |
| 환자와의 관계가 어렵다                 | 1  | 3.4  |
| 기타                           |    |      |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표 8)의 항목에서 3개 선택토록 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병원 실무진의 학생에 대한 인격부족”이 20명 (69.0%)으로 가장 많고 “간호이론과 실습과의 거리감” 18명 (62.1%), “병원시설과 재료의 부족” 11명 (37.9%), “여성집단에 적응하기 힘들” 10명 (34.5%)순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인격적인 대우 부족 (32.1%)과 실습시설의 부족 (22.5%)이 실습에 대한 불만 원인으로 높게 나타난<sup>11)</sup> 한의 연구결과와 실습시설부족 (28.6%)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24.3%)이 높게 나타난<sup>5)</sup> 박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도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 교육 내용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데서 온다고 지적하였고 강의내용과 임상실습의 차이, 실습장의 환경적인 차질, 실습시 소속하는 여러 부류의 인간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sup>12)</sup>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 활발했던 간호원의 해외진출로 부족되는 간호원을 배출키 위해 세대로 시설과 교수를 확보치 못한 상태에서 많은 간호학교가 설립되었기에 이와같은 문제가 야기되었으리라 생각하나 간호직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이면서 앞으로 간호를 발전시켜 이어갈 학생들의 교수진과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교당국과 교수의 책임이라 하겠다. 1979년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교육의 질적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교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이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11편 간호직에 대한 이해에서 간호직이 남성에게도 적합한 직업이다라는 항목에 많은 학생(62.1%)이 긍정<sup>1</sup>을 하면서도 임상실습의 불만 원인중 4 번째가 여성집단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항목인 것을 보면 소수집단으로써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남학생인 Rogness는 외로움과 고립을 남성만의 모임<sup>2</sup>을 자주 가짐으로 해소하였다<sup>20</sup>고 했으며 본 조사 대상 중 1명의 남성간호학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문제를 그 교수와 상담함으로 해결하였으며 그 결과는 좋았다고 한다.

나라서 아직은 여성의 압도적으로 많은 간호분야에서 남성의 활동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나 이 분야에서 남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한 간호학생이나 여성간호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남성 간호원상의 확립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학교나 간호분야에서 남성을 위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표 9. 졸업 후 희망 취업 분야

| 취업 분야 | 실수 | %    |
|-------|----|------|
| 임상간호  | 9  | 31.0 |
| 보건소   | 9  | 31.0 |
| 산업장   | 4  | 13.8 |
| 학교보건  | 8  | 27.6 |
| 간호행정  | 8  | 27.6 |
| 간호교육  | 15 | 51.7 |
| 해외진출  | 25 | 86.2 |
| 기타    | 2  | 6.9  |

#### E. 졸업후 희망 취업 분야

졸업후의 희망 취업 분야를(표 9)의 항목에서 3개선택토록 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해외진출”이 25명(86.2%)으로 가장 많고, “간호교육 15명(51.7%), “보건간호”(보건소, 산업장) 13명(44.8%), “임상간호” 9명(31.0%), “간호행정” 8명(27.6%)순이었다. 해외진출이 가장 많은 점은 해외진출이 간호학 선택동기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당연히 결과라 하겠다.

○ 와같은 결과는 임상간호가 가장 많고 보건간호가 아주 적은<sup>21)</sup>박과 한의 연구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라 하겠다.

본 조사대상의 희망 취업 분야로 여성과는 달리 보건간호가 임상간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환자를 자주 접하는 전통적인 간호의 본질인 환자침상간호를 피

함으로써 그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sup>22)</sup>고 하는 Greenberg와 Levine의 이론이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Mannino는 “타분야인 병원행정이나 관리분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간호직은 직업으로 추천한다”<sup>23)</sup>고 하였으나 간호행정을 원하는 학생이 1명도 없는<sup>24)</sup> Schoenmaker나 Rogness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본조사대상에서 임상간호와 유사하게 8명(27.6%)이나 원한 점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조사의 연구결과는 보건간호분야와 행정분야를 많이 휘방한다<sup>25)</sup>고 하는 Bush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표 10. 임상간호중 희망취업 분야

| 취업 분야 | 실수 | %    |
|-------|----|------|
| 내과    | 3  | 10.3 |
| 정신과   | 15 | 51.7 |
| 소아과   | 2  | 6.9  |
| 산부인과  | -  | -    |
| 외래    | 1  | 3.4  |
| 외과    | 6  | 20.7 |
| 수술실   | 16 | 55.2 |
| 마취과   | 16 | 55.2 |
| 중환자실  | 8  | 27.6 |
| 응급실   | 8  | 27.6 |
| 물리요법실 | 7  | 24.1 |
| 기타    | -  | -    |

#### F. 임상간호중 희망 취업분야

임상간호중 희망 취업 분야를(표 10)의 항목에서 3개선택토록 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수술실”과 “마취과”가 각각 동일하여 16명(55.2%)으로 가장 많고 “정신과” 15명(51.7%), “중환자실” “응급실”이 각각 동일하여 8명(27.6%)순이었고 “산부인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전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마취, 정신과, 수술실 순위로 희망 취업 분야가 나타난<sup>26)</sup> Auster와 Auster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고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내외과, 정신과 마취과 순으로 나타난<sup>27)</sup> Shoenmaker의 연구 결과와 역시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외과, 중환자실과 심장간호, 수술 마취 순으로 나타난<sup>28)</sup> Williams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Auster는 간호직내의 남성들은 전문적 기술을 갖는것을 남자다움의 지표로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환자간호는 여성의 역할로 생각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함으로 역할갈등을 감소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Schoenmaker는 지금까지 희망취업분야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아 왔던 마취나 수술, 정신과가 뒤로 밀린 것은 여성해방과 남성해방이 함께 도래하여 남성이 간호직에서 좀더 자유스러워지고 주체성이 확고해진 결과<sup>27)</sup> 하였다. 또한 Williams은 남성들은 기술적인 능력과 책임을 요하며 좀더 많은 급료와 위치가 확보되는 전문적 기술(specialty)을 갖기 원하며 학사과정의 남학생이 전문학교의 경우보다 직접적인 환자간호 분야에서 일하기 원하며 여기에서 생기는 환자갈등도 없다<sup>28)</sup>고 하였다. 그러나 본조사 대상에서 수술실과 마취, 정신과, 중환자실과 응급실 순위로 희망취업 분야가 나타났고 Williams의 경우 응급실보다는 산부인파를 지망하는 학생이 많았는데<sup>29)</sup>도 본조사 대상에서 산부인파를 원하는 학생이 1명도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남성들은 아직도 간호분야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

#### IV. 결론 및 제언

##### A. 결 론

본연구는 점차 확대되는 남성에 대한 간호직 문호 개방과 함께 전국간호전문대학 남학생의 제특성을 분석하여 학생선발시나 교육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1978년 11. 1~11. 15일까지 남녀 공학 이 허용된 전국 9개교의 간호교육기관총 11월 현재 남학생이 재학중인 3개교의 간호전문대학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송하여 회수된 2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1. 간호학선택동기 3개를 선택토록 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수를 파악하였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직업 이므로”가 21명(72.4%)으로 가장 많고 “부모 및 친지의 권유” 18명(62.3%), “해외취업이 잘되므로” 17명(58.7%)순이었다.

2. 간호직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기 위해 1과 같은 방법으로 3개 선택토록 하였을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가 22명(75.9%)으로 가장 많고 “남성에게도 적합하다”와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다양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직업이다”가 각각 동일하여 18명(62.1%)순이었다.

3. 간호학전공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면 “보통이다”가 15명(51.7%)으로 가장 많고 “만족하다” 8명(27.6%), “불만이다” 4명(13.8%)순이었다.

4. 교수진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면 “보통이다”가 16명(55.2%)으로 가장 많고 “불만이다” 10명(34.5%

“만족하다” 2명(6.9%)순이었고 불만의 이유를 1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때 “교수진의 교육방법과 내용 부족”이 23명(79.3%)으로 가장 많고 “교수진의 인격적 수양부족” 13명(44.8%), “교수진의 양적 부족”과 “교수진의 학습평가 방법의 모호”가 각각 동일하여 11명(37.9%)순이었다.

5.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면 “보통이다”와 “불만이다”가 각각 동일하게 8명(27.6%)이었고 “만족하다”가 7명(24.1%)이었으며 불만의 이유를 1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때 “병원실무진의 학생에 대한 인격적 대우 부족”이 20명(69.0%)으로 가장 많고 “간호이론과 실습과의 거리감” 18명(62.1%), “병원시설과 재료의 부족” 11명(37.9%)순이었다.

6. 졸업후의 희망 취업 분야를 1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하였을 때 “해외진출”이 25명(86.2%)으로 가장 많고 “간호교육” 15명(51.7%), “보건간호” 13명(44.8%) 순이었다.

7. 임상간호중 희망 취업 분야를 1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해볼 때 “수술실”과 “마취과”가 동일하여 각각 16명(55.2%)으로 가장 많고 “정신과” 15명(51.7%),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각각 동일하여 8명(27.6%)순이었다.

##### B. 제 언

문화발달로 볼 때 비록 종교적 자비의 표현이었지만 남성도 환자간호를 담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로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간호직에서 남성의 위치는 확고하지 못한 상태나 계속해서 간호직을 찾는 남성이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경쟁적이고 지배욕에 강하며 사고의 독립성과 야망과 추진력이 있고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기에 좀더 안정되게 그들의 직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맞는 간호인력 개발과 전문 간호직 위치확보에서 현재 확장되고 있는 간호대학의 남성에 대한 문호 개방은 바람직하나 개방에서 그치지 말고 보다 많은 노력은 남성 모집에 동원해야 하겠고 교수진의 양적 질적면의 향상과 임상실습의 내실화를 기하며 이들이 국내 간호계에서 취업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연구는 전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 이지만 남성의 특성을 꼭 넓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a)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의 비교 연구

b) 학사과정과 전문학교과정 학생 간의 비교연구

c)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종적 연구.

### 참 고 문 헌

1. 경북대학교 1975학년도 신입생 현황분석, 학생지도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제 8권 1호, 1975, pp 43-60.
2. 김보임, 간호전문직과 여성, *대한간호*, 제17권 6호, 1978년, pp. 21-27.
3.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8, pp. 264-267.
4. 도복희, 박상연, 려욱남 교수-학생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앙의학*, 제33권 2호, 1977, pp. 163-168.
5. 박상연, 간호학생의 입학동기 및 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제33권 2호, 1977, pp. 289-196.
6. 박청자,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연구, *월간간호*, 제16권, 1978, pp. 111-128.
7. 이영부, 간호사, 수문사, pp. 171.
8. 이상로, 교사-학생의 인간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학생지도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제 1권 1호, 1968, pp. 1-5.
9. 윤 옥, *인간관계론*, 서울 형설출판사, 1978, pp. 39-59.
10. 조경순,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대한간호*, 제16권 6호, 1977, pp. 56-70.
11. 한영자, 경기간호전문학교 학생들의 제특성과 학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간호전문학교 논문집*, 제16권, 1975, pp. 33-50. 전
12. 한정석,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3권 2호, 1973, pp. 121-129.
13. 차선정, 간호학교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기초 일조사, *간호학회지*, 제 2권 1호, 1971, pp. 201-215.
14. 1976년도 간호교육실태조사, 대한간호협회 학술부, *대한간호*, 제16권 1호, 1977, P. 66.
15. 1978년도 간호교육 실태조사, 대한간호협회 학술부, *대한간호*, 제18권 1호, 1979, P. 22.
16. Aldag, Jean, and Christensen, Cheryl. *Personality Correlates of Male Nurse*, Nursing Research, Vol. 16, No. 4, Fall 1967, pp. 375-376.
17. Aldag, Jean C., *Occupational and Nonoccupational Interest Characteristics of Men Nurses*, Nursing Research, Vol. 19, No. 6, Nov.-Dec., 1970, pp. 529-533
18. Are Men Nurses Really Accepted? (editorial), *Nursing Outlook*, Vol. 15, No. 27, May 1967.
19. Auster, Donald, and Auster, N. R., *Men Who Enter Nursing*, Sociological Analysis, Canton, N.Y., St. Lawrence U., The Authors, 1970.
20. Bush, Patricia J. The Male Nurse, a challenge to traditional role identities, *Nursing Forum*, Vol. 15, No 4, 1976, pp. 390-405.
21. Boorer, David J. *Men Nurse in Britain*, *Nursing Outlook* Vol. 16, Nov. 1968, pp. 24-26.
22. Garvin, Bonnie J., *Values of Male Nursing Student*, *Nursing Research*, Vol. 25, No. 5, Sep.-Oct., 1976, pp. 352-357.
23. Greenberg, Emily, and Levine, J. Burton. *Role Strain Men Nurs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Nursing Forum*, Vol. 10, No. 4, 1971, pp. 416-430.
24. Maninino, Sandy F., *The professional Man Nurses*, Why He Chose Nursing and Other Characteristics Men in Nursing, *Nursing Research*, Vol. 12, No. 3, Summer 1963, pp. 185-188.
25. Men in Nursing (editorial), *Amer J Nurs*, Vol. 61, No. 2, Feb. 1961, pp. 51.
26. Rogness, Hal, *A Student Surveys His classmates*, *Nursing Outlook*, Vol. 24, No. 5, May 1976, pp. 303-305.

27. Schoenmaker, Adrian, and Radosevich, David M., Men Nursing Students; *How They Perceive Their Situation*, Nursing Outlook, Vol. 24, No. 5, May 1976, pp. 298-303.
28. Silver, Henry K., and McAtee, P. A., *Health care Practice An Expanded Profession of Nursing for Men and Women*. Amer J Nurs, Vol. 72, No.1, Jan. 1972, pp. 78-80.
29. Simpson, R. L., and Simpson, I. H., *Women and Bureaucracy in the Semiprofession*, In the Semiprofessions and Their Organization, ed. by Amitai Etzioni, N.Y., Free Press, 1969, pp. 196-265.
30. Williams, Reg Arthur, *Characteristics of Male Baccalaureate Students who Selected Nursing as a Career*, Nursing Research, Vol. 22, No. 6, Nov-Dec., 1973, pp. 520-525.
31. Vaz, Dolores, *High School Senior Boy's Attitude Toward Nursing as a Career*, Nursing Research, Vol. 17, No. 6, Nov-Dec., 1968, pp. 533-538.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Male Diploma Nursing Students in Korea.**

Hyae Sung Kim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d of characteristics of male diploma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a mailed questionnaire. The sample included 29 respondents from 3 diploma nursing colleges during the period of Nov. 1st-15th, 1978.

Major findings included.

- 1) Motive by which the objects of this investigation have chosen the science of nursing.

Twenty-one (72.4%) responded, "As nursing occupation is a public welfare work," the highest rate, eighteen (62.3%) chose on advices of their parents and acquaintances. Seventeen (58.6%) reflected as a means of life with an occupation in hope of employment abroad.

- 2) Appreciation of nursing occupation.

Twenty-two (75.9%) of opinions that the nursing job is called for by society was predominant. While eighteen (62.1%) replied, "It is the job fit for the male sex, too." "It is admitted as specialized occupation.", or "It needs various human relation."

- 3)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cience of nursing.

Fifteen (51.7%) respond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while eight (27.6%) indicated as "satisfied," and four (13.8%) as "dissatisfied."

- 4)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faculty.

Sixteen (55.2%) replied, "common," the highest, while ten (34.5%) indicated as "dissatisfied," two (6.9%) as "satisfied."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faculty; The responses regarding dissatisfaction was twenty-three (79.3%) as insufficiency of the faculty. Thirteen (44.8%) indicated" the lack of personal cultivation of the faculty.", And eleven (37.9%) indicated as "the quantitative shortage of the faculty," or "the vagueness of learning estimation."

- 5)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training.

Eight (27.6%) responded as "common," or "dissatisfied," while seven (24.1%) indicated as "satisfied." Reason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Twenty (69.0%) indicated "deficiency of personal treatment to the students of the men of business in the hospital" with respect to the reason, eighteen (62.1%) was indicated as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while eleven (37.9%) indicated "insufficiency of the equipment and materials of the hospital."

- 6) Interest in employment after graduation.

Twenty-five (86.2%) indicated "going abroad" while fifteen (51.7%) indicated "education of nursing," which were the highest responses. Thirteen (44.8%) chose "Community Health Nursing (Health Center, Industrial Health)."

---

\* Armed Forces Nursing School.

**7) Interest in employment during clinical nursing.**

Sixteen (55.2%) was interested in an operating room or the department of anesthesia, while fifteen (51.7%) was indicated "psychiatry." Eight (27.6%) chose a intensive care unit or a emergency room.